

##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작업반 제41차 회의 참석

- 지민웅 부연구위원(중소벤처기업연구실)

1. 출장자 : 지민웅 부연구위원 (중소·벤처기업연구실)
2. 출장기간 : 2012년 4월 18일(수) ~ 20일(금)
3. 출장지역 : 프랑스 파리 (OECD 본부)
4. 출장목적
  - 제41차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작업반(WPSMEE : Working Party on SMEs and Entrepreneurship) 회의 참석

## 5. 작업반에서 토의된 주요 내용

### □ 중소기업과 고용창출형 성장

- 목, 금요일에 개최된 WPSMEE 회의 전에, 유럽에서의 Micro Finance와 고용창출(Job Creation)간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수요일 오후에 개최됨
  - 최근 John Haltiwanger 교수와 OECD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EU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, Micro-firm이 가장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 필요: 신생기업 혹은 영세규모의 기업이 적은 수의 노동자를 신규채용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, 이 경우 고용증가율은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(예를 들어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5명을 신규채용하면 50%의 고용증가율로 나타남)
  - 이에,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는 Micro-firm과 High Growth Firm은 구분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됨
  - 이 과정에서,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형 성장이 Smart Growth, Sustainable Growth, Inclusive Growth의 조화라는 European 2020 Strategy에 조응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존재
  - 이러한 논의 속에서, 그리스와 뉴질랜드는 최근 Micro-finance 정책을 발전시켜오고 있음을 시사
  - 일본: 내수시장 중심의 Micro-firm 지원과 해외시장 중심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이에 고민하고 있음

### □ 국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

- 국제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적극

적으로 추진

-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도입을 통한 정책의 범위 확산 (Broadening)과 지원대상의 합리적 선정(Selectivity)을 병행
- 그러나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 나타나듯이 국별 재정 상황에 따라 정부의 역할에 차이 노정
  - 향후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별로 부정적인 나라들이 많아 지혜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증대
- 따라서 이번 WPSMEE 회의에서는, 유럽 재정위기 지속, 아시아의 경제 성장 둔화, 고유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아래의 주제를 토론 의제로 제시
  - 중소기업의 매출, 투자, 고용 및 금융조달 현황
  - 현 상태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을 주도하는 부문
  -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현 상황 평가
  -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도입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조치 관련 회원국의 평가
- 국별 주요 동향 및 추진정책에 대한 논의
  - 많은 회원국들이 동 주제에 대한 자국의 경험을 발표하였는데, 중소기업이 세계 경기회복 및 경쟁력 향상에 중요함을 강조
  - 영국: 중소기업의 실물투자·고용·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, 청년창업 및 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 중
  - 뉴질랜드: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

- 미국: 중소기업 펀드 조성 등의 정책 추진
- 영국: 이외에,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소화,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용자 및 보증 확대,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, 중소기업 지분투자 확대 및 미소금융 강화 필요성 등이 강조

## □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

### ○ OECD Scoreboard on SME & Entrepreneurship Financing

- 중소기업과 기업가의 금융 접근 정도를 국별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체계 구축
  - 2010년 Pilot 단계를 확장하여 2011년 최초 작업 추진
  - 21개 참여국에 대한 통계와 Basel III의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
  - 핵심지표(14개): Share of SME loans in business loans, SME loan guarantees, SME loans authorized / SME loans requested, Interest rate spreads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, venture capital and growth capital
  - 하지만 여전히, 금융기관 통계에서 국별 기업규모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을 정확히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, Venture Capital을 비롯한 Growth Capital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
- 2013년도 OECD 스코어보드(Scoreboard)는 국가별 중소기업 금융지원 동향 및 자금조달 용이도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26개국이 작성에 참여
  - 일본, 터키, 멕시코, 이스라엘, 노르웨이, 스페인, 러시아 및 세르비아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힘
- 2013년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 관련 최신 동향, 국가 및 중소기업 규모별 금융 통계, Basel III, 중소기업 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
  - 2010년에 마련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은행자본 건전화방안, 중

소기업 금융의 대안적 수단, 금융위기 이후의 공적 금융 및 개발 은행 (Development Bank)의 역할에 대한 조사연구 추진

- 신용중개(Credit Mediation)기관과 상호신용협회(Mutual Guarantee Societies)와 관련한 논의
  -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신용중개기관에 대한 효율적 접근 모색
    - 특히 고위험 고성장 중소기업의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Business Angel Investor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, 여전히 크게 미흡한 상황
  - Credit Mediation과 Mutual Guarantee Societies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별개로 추진할 필요성 제기
    - 신용중개기관은 정보 제공, 모니터링, 정기적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
    - 상호신용협회는 부문별·지역별 맞춤형 정보 및 위험 관리 제공 역할
  - 정부 역할과 관련, 규제와 세금 감소(OECD), 종합적 금융 프로그램제공(AECM : 유럽신용보증기관연합회), 장기적으로 민간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별 중소기업 금융 제도 공유 필요(벨기에)
- 대안적 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
  - 독일: 혁신형 기업의 R&D, Basel III, 중소기업 인력과 관련된 금융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,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 금융 시장 개선 방안 필요
  - 일본: 대지진 이후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, 이를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
  - 룩셈부르크: 실업 문제 분석 및 이주 노동자 포용 관련 금융시스템 개

## 발 강조

-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(Global Partnership on Financial Inclusion, GPMI)에 대한 논의
  - 중소기업 금융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논의를 위한 OECD WPSMEE와 G20 GPMI의 합동 워크숍으로 논의
    - 참여기관: G20 및 비G20 국가, 국제기구(OECD, ADB, AfDB, IADB, ILO, UN 등), 민간기관 등이 주도
    - 실무운영: AFI(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), CGAP(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) 및 IFC(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)
  - 중소기업 금융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각국의 논의
    - 대다수의 회원국이 총 사업체 수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99%이지만 여전히 대기업보다 높은 이자율과 담보 요구에 직면
    - 멕시코: 소기업 및 여성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필요
    - 독일: 고용과 GDP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 강조
    - 미국: 지역별·부문별 중소기업간 격차 심화, 아프리카 지역 및 농업 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필요성 제기
    - 프랑스: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, 보험과 같은 새로운 중소기업 금융 영역 개발 강조
    - 종합: 혁신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

## □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촉진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

- 중소기업은 중국·인도·브라질 등 신흥개발도상국보다, 미국·독일 등 선진국 시장에 관심
  -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여부는 수출 가능성과 안정성에 가장 크게 영향 받음

- 해외 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보다 생산성이 4배 이상 높음
  - 따라서, 각국은 높은 관세, 부족한 정부 지원 및 정보, 경쟁 심화 등에 대한 대내외 무역장벽 제거 필요
  -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필요: 캐나다의 경우 중소기업 95%가 서비스 분야에 종사
- 하지만 OECD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촉진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
- 한국 포함 15개국만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한 기업의 수도 그 나라의 중소기업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매우 적음
  - Self-Selection Mechanism 통제 못한 조사: 해외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요인을 분석할 때, 해외 시장에 ‘이미’ 진출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그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음
  -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는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
  - 모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꿈꾼다고 가정할 때, 아직 진출하지 못한 기업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한다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
  - 반면 이미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, 해외 시장의 벽을 최초로 허물 때의 제약조건은 극복한 상황이므로 해외 시장에서 해당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건과 대책에 대해서만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 높음 -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: “혁신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”

## □ 멕시코 중소기업 정책 리뷰

- OECD는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중소기업정책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인데, 이번 회의에서 멕시코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
  - 멕시코는 분산화된 사업 영역과 금융을 통해 민간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
  - 그러나, 소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, 가젤형 및 혁신형 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룸
  - 사업 서비스 시스템 및 초기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
- 하지만 이상의 보고서에 대해, 멕시코 중소기업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간과된 채, 너무 거시적으로만 접근하여 어느 국가의 중소기업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제기
  - 올 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검토 보고서에 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

## □ 중동과 북아프리카(MENA) 지역의 신생기업 육성

- MENA(Middle East & North Africa) 지역에 대한 OECD의 기여방안으로서 이 지역 신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
  - WPSMEE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정책 도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작업 추진 요망
- 기업 창출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역할, MENA 지역에서 기업창출 현황을 중심으로 작업을 추진 중
  - 신생기업의 발전과정을 ①배아단계, ②설립단계, ③성장·확대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접근 추진



- 이러한 작업 추진에 각국의 사례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용한 시사점 도출 가능

- WPSMEE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에서 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작업 팀에 소개하여 주기를 요망

## □ 기타 논의사항

-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의 녹색성장, 혁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의

- 친환경 혁신을 위해 기업가정신 발전과 산업적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발표

-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에서의 주요 장애 요소는 금융(특히 Venture Capital) 부족, 수요의 불확실성, 기술적 차이 등

- 친환경 혁신 주도(Driving Eco-Innovation) 및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(SMEs and Entrepreneurship)에 대한 연구 시, 내용 중복이 없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

-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녹색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존재

## □ 2013~14년의 작업반 프로그램

- 사무국에서는 금융(Financing)과 혁신(Innovation)을 중심으로 주제들을 부가하여 6개 분야 추진과제를 제시

- 동 추진과제 관련 회원국들은 ‘중소기업 금융과 기업가정신’, ‘중소기업 혁신’, ‘중소기업 촉진 정책’, ‘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’순으로 우선순위 선정

## VI. 평가

-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임은 분명한 만큼,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조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
- 이번 WPSMEE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무국과 협력하여 ‘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검토 보고서’ 작성계획을 밝힘
  - 특히, OECD 사무국과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기록한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이번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및 개선방안 등은 홍보가 필요
  -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검토 보고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, 정책 분야 별로 영어로 된 분석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OECD의 작업팀과 공유할 필요
  - 녹색성장 지원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좋은 보기
- 또한, WPSMEE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작업에서 각국의 정책사례와 기업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리뷰는, 반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및 중소기업 발전 경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
- WPSMEE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인만큼 추진 중인 작업의 데이터에서 Macro 데이터뿐만 아니라 Firm-level의 Micro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,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Micro 데이터를 정비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
- WPSMEE에서 발간되는 각종 작업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빠지

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, 우리나라 통계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필요

- 현재 WPSMEE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정도로 WPSMEE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, 우리나라도 동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력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